

1

일반 국민의 종교 단체 헌금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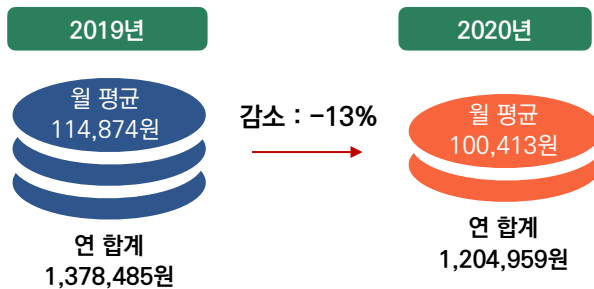


2020년 연간 종교 단체 헌금, ‘2019년보다 13% 줄었다!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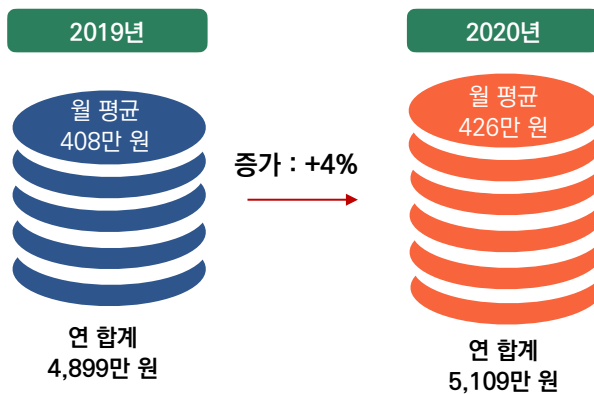
- 지난 2월 18일 통계청이 ‘2020년 4/4분기 가계동향조사’를 발표했는데, 2020년 연간 가구당 월 평균 ‘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(기부금)’은 100,413원으로 2019년 114,874원 대비 13%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(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 : 교회·성당·절 등 종교단체 기부금(헌금) 또는 비영리사회단체에 월 기부액 또는 회비를 말하는데, 통계청은 주로 비영리사회단체 기부금이 1~3만 원 수준으로 본다면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함)
-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**이 2020년 월 평균 408만원에서 2020년 426만 원으로 오히려 4% 늘었음에도 ‘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’은 오히려 감소했는데,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모임 등의 증가로 헌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.

[그림] 가구별 비영리단체 이전 지출(기부금) 추이 (2019 vs 2020)



[그림] 가계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(2019 vs 2020)



*자료 출처 : 통계청, '각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'

**처분가능소득 : 소득에서 비소비지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일명 실제 가구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금액을 말함